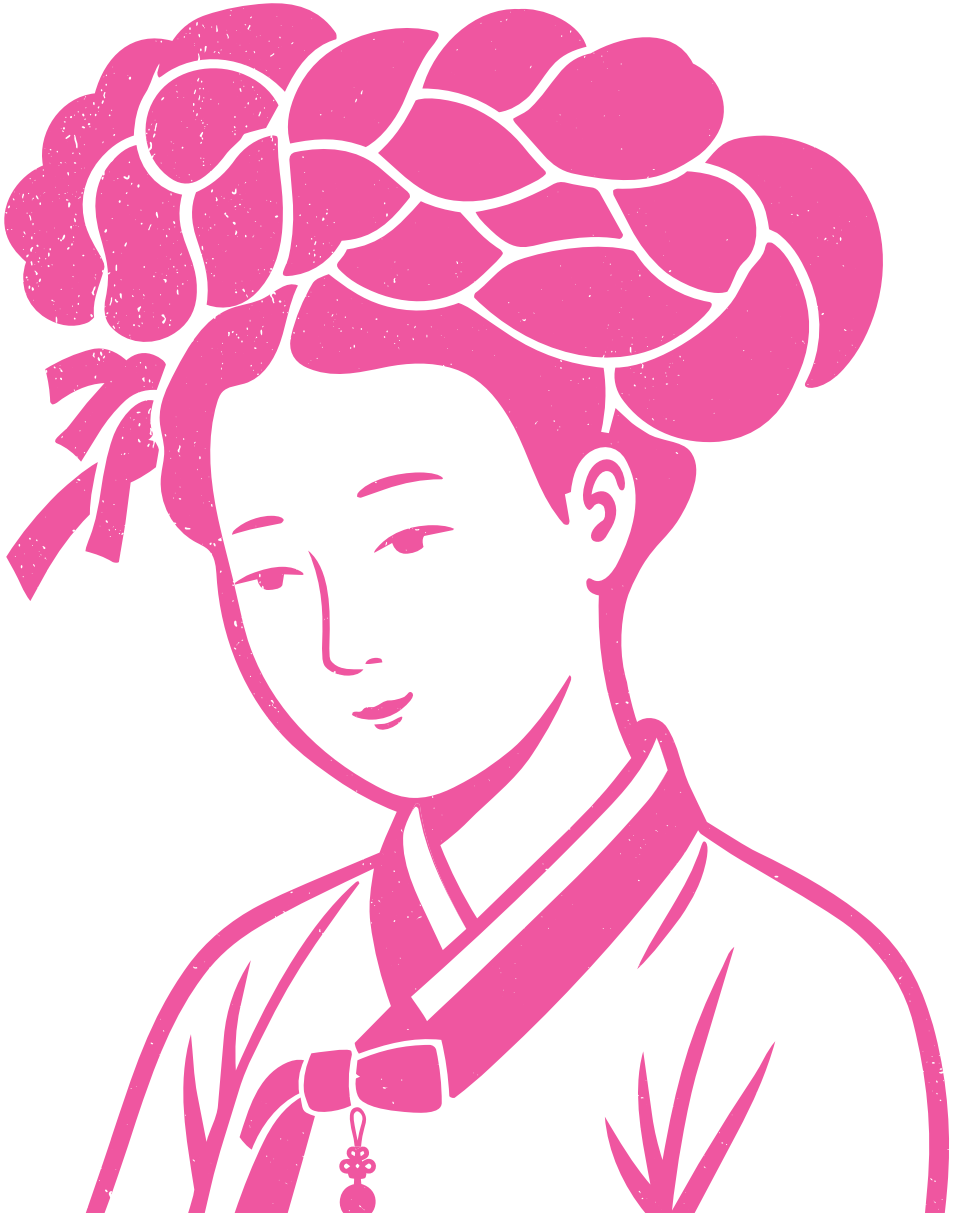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폐막작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
Bravo, Daegu! Viva, Opera!



Jin Youngmin **미인** The Beauty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Daegu Arts Center Palgong Hall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 폐막작

The Beauty

Jin Youngmin 미인

10. 30(금) 14:00, 19:30 - 31(토) 15:00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The Beauty

Jin Youngmin 미인



개요
작곡 진영민
대본 조광화
배경 조선시대 중후기
초연 2026. 10. 30 대구문화예술회관
형식 2막
언어 한국어
시간 150분
연령 초등학교생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이경재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출연진
신씨/설우 Sop. 이해진, 정선경
은양군 Bar. 권성준, 서정혁
별감 Ten. 김동녘, 석정엽
당숙 Bar. 이준학
차남 Ten. 이승민
달문 M. Sop. 김보라
한씨 M. Sop. 서미선
남순 Sop. 허은정
신씨모 M. Sop. 이아름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정길무용단
극단 놀해랑

INFORMATION
Composer Jin Youngmin
Librettist Cho Gwanghwa
Setting Mid to late Joseon Dynasty
Premiere October 30, 2026, Daegu Arts Center
Form 2 acts
Language Korean
Running Time 150 min
Age Elementary school student or older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Lee Kyoungjae
Conductor Lee Dongsin
Director Yu Cheolwoo

CAST
Madam Shin/Seolwoo Sop. Lee Hyejin, Jeong Seonkyong
Prince Eunyang Bar. Kwon Seongjun, Seo Jeonghyeok
Byeolgam Ten. Kim Dongnyuk, Seok Jeongyub
Uncle Bar. Lee Junhak
Second Son Ten. Lee Seungmin
Dalmun M. Sop. Kim Bora
Matron Han M. Sop. Seo Miseon
Namsun Sop. Heo Eunjeong
Mother of Madam Shin M. Sop. Lee Arum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Junggil Dance Company
Theater Company Neulhaerang

Contents

목차

인사말 Greetings	07
작곡가 소개 Composer	08
대본가 소개 Librettist	10
연출가 노트 Director's Note	12
줄거리 소개 Synopsis	14
등장인물 Characters	15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16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18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20
출연진 및 출연단체 Cast	22
제작진 Staff	32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36



Greetings

인사말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이 경 재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폐막작인 창작 오페라 <미인>을 포함한 5개의 메인 작품과 함께 차기 전막 오페라 제작을 위한 한국 창작 오페라 쇼케이스 <코리아 콘체르토>, 대구성악가협회와 공동주관한 <50 스타즈 VI>, 대구음악협회와 마련한 프린지 콘서트, 국제오페라포럼 및 오페라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대구 전역에서 펼쳐졌고, 시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지난 2년여간 정성들여 준비한 창작오페라 <미인>은 조선 후기 혜원 신윤복의 풍속도 화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4년 전 '카메라타 창작오페라 연구회'를 통해 대구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한국 창작 오페라의 새로운 모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264, 그 한 개의 별>이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선보였고, 이번 축제에 진영민 작곡, 조광화 대본의 <미인>이 초연됩니다. 신윤복의 다양한 풍속화에서 길어 올린 조광화 선생님의 이야기가 진영민 선생님의 음악을 입고 오늘 처음 무대 위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초연에 이르기까지의 긴 산고는 출연진과 제작진의 땀방울을 통해 마침내 무대 위에서 결실을 맺으며, 제 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오페라 <미인>을 태어나게 해주신 작곡 진영민 선생님, 대본 조광화 선생님을 비롯하여, 지휘의 이동신, 연출의 유철우 선생님, 그리고 전 출연진분들과 스태프, 대구오페라하우스 및 대구문화예술회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국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이 작품의 첫 무대를 함께 하시는 관객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Composer

작곡가 소개



진영민 Jin Youngmin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오스트리아 린츠 부르크너 주립음악원, 빈 국립음악대학 졸업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념 창작오페라 <신종-천년의 울음> 작곡 및 한국문예진흥원 창작공연 오페라 부문 선정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 국제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불의 혼>
-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오페라 <가락국기>
- 빈 국립방송홀(ORF)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 위촉 작품 관현악곡 '도술가-죽는 자가 가는 영혼의 소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관현악곡 및 여러 장르의 창작품 발표
- 대구시립교향악단 유럽투어 '베를린 필하모닉홀, 빈 무지크페라인, 체코 스메타나 홀' 위촉 작품 '창발'
- 대구시 문화상, 대구음악상 대상,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및 한국음악협회 공로상
- 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삼익THK 공익사업단 단장

작곡가 노트

간송미술관에서 「미인도」를 마주한 순간, 이런 문장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 다시 태어나, 여기서 기다립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몇 생을 거듭해도 다시 만나는 인연. 오페라 <미인>은 이 한국적인 이야기에 신윤복의 화첩을 더한,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작곡을 위촉받았을 때, 제가 알던 오페라의 소재와 달리 그림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신윤복의 화첩에는 다채로운 소재가 담겨 있었고, 기존 오페라가 영웅이나 역사적 사건, 소설 등에서 주로 다뤄온 틀에서 벗어나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풍속화 속 인물과 상황은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오페라의 소재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윤복 그림이 지닌 공간과 구도의 특징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작곡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지만, 작업 과정만큼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신윤복의 그림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미인도」를 바라보는 동안, 이전의 창작오페라 작업에서는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이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첩 속 다양한 장면의 이야기들이 「미인도」로 귀결되는 과정에는 소설이나 드라마와는 다른 극적인 힘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끄집어 내고 싶다는 마음과 아울러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그동안 제작한 오페라에서 보여준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신뢰도 <미인>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미인>은 대본이 나오기 전에 소재를 공모하였고 이후 예술감독, 연출가, 대본가, 작곡가가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갔고, 전막 오페라가 나오기전 연주회를 통해 얻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과정은 창작오페라 제작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본에서는 신윤복의 화첩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상상력이 오페라의 극적인 요소로 잘 구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노랫말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으며 대본을 읽을 때마다 음표가 떠올랐고, 잃어버린 추억을 주워 담듯 악보는 퍼즐처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닮아 있음을 발견했고, 그림 속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마음에 내려앉으면서 대본의 깊은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인>은 신윤복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과 선, 색깔과 화면 구성, 그리고 인물들이 놓인 공간의 긴장과 여백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서양 오페라와는 다른 음악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고, 서양 오페라의 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의 시각 문화와 현대적인 음악 언어를 결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출발점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익숙한 오페라의 언어로 작품의 일부만 바라본다면, 작품이 지닌 의도와 다양한 표현을 놓치기 쉬울 것입니다.

음악은 제가 꾸준히 추구하고 확립해 온 신조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신윤복의 그림에서 연상되는 공간감과 색채를 소리로 옮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성적으로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예상 밖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 안에 전통 문양이나 장식이 놓이고,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물이 의외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듯, 성격이 다른 음악적 요소들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신윤복 회화의 독특한 공간 배치와 구도에서 형식적 아이디어를 얻어, 음악이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큰 형식 안에서 작은 음악적 모티프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가며 다양한 층위를 이루도록 한 점은 이 작품에서 특히 공들인 부분입니다.

관객이 작품 속 미술관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기를 바랐고, 이러한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습니다. 무대 구조와 그 위에 펼쳐지는 영상 이미지가 미디어 요소와 어우러져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공통분모를 찾고자 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공통 언어라는 믿음이 작업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미인>은 그 믿음을 담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Librettist

대본가 소개



조광화 Cho Gwanghwa

- 중앙대학교 철학과 졸업 및 공연예술아카데미 수료
- 제34회 백상예술대상 대상·희곡상, 제3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제1회 뮤지컬어워즈 연출상,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작품상·연출상, 대한민국 극작가상 등 다수 수상
- 연극 ‘남자총동’, ‘철안봇다’, ‘황구도’, ‘미친키스’, ‘도화만발’ 극작 및 연출, 뮤지컬 ‘서편제’, ‘천사의 발톱’, ‘내 마음의 풍금’ 등 대표작을 비롯해 고전과 창작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무대 연출 및 극작 활동
- 2002 한일월드컵 개막식 문화행사, 2015 CISM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구성작가 역임
- 한국연극협회 극작분과 위원장, 한국뮤지컬협회 이사, CJ크리에이티브마인즈 연극부문 예술감독 역임
-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극작전공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강 및 DIMF 뮤지컬아카데미 강사 역임



대본가 노트

해원의 그림에서 시작된 이야기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간송이 지켜낸 보물들을 보았다. 그중에서도 <해원전신첩>과 <미인도> 앞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관람객들이 그림마다 오래 머무는 바람에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다음 일정에 쫓기던 나는 기다리다 못해 빈틈을 찾아 옮겨 다니며 그림을 언뜻언뜻 보았다.

시간을 내어 다시 찾아갔을 때도 그곳은 여전히 붐볐다. 이번에는 그림만큼이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관람객들은 <해원전신첩>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고, 인물들 간 서로 어떤 사이인지 짐작하고, 그 장면의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행과 이야기를 소근 소근 나누었다. 저마다 다른 상상을 하느라 감탄과 장난기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엄숙하고 정숙함을 유지하느라 조용한 미술전시관에서는 이례적인 활기였다. 내 공연의 극장 객석에서 만나고 싶은 생생한 표정들이었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궁금해졌다. 이 그림들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토록 즐겁게 상상에 빠지게 하는 걸까.

나도 그들처럼 그림 속 인물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해원전신첩>의 기생과 여염집 부인들은 서로 다른 그림에 있지만, 같은 세상 어딘가에서 만나고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한 여인의 사연이 다른 그림 속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해원 신윤복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림 속 사건에 직접 끼어든 것 같지 않다. 어떤 것은 눈앞에서 본 것을 그리기도 하고, 들은 사연에 자신의 상상을 보태기도 하지 않았을까. 나 역시 그림과 그림 사이의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우며 이야기를 엮었다.

그 이야기의 절정에 <미인도>의 여인을 두고 싶었다. 그녀는 기생인 듯 보였지만, 어느 사대부 못지않은 품격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단아한 얼굴에는 오래 감춘 슬픔도 어려 있었다. 아름답다는 말만으로는 그 표정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시간을 견뎌 저토록 의연해졌을까. 남들이 붙여준 이름과 운명 말고, 스스로 원한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해원 신윤복은 그녀를 어떤 상황에서 지켜보았을까? 어디까지가 목격한 모습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으로 그린 것일까?

그 물음에서 ‘신씨’가 태어났다. 가문은 그녀에게 죽어서 열녀가 되기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살아서 ‘설우’가 된다. 두 이름 사이에 놓인 선택과 상처,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쓰고 싶었다.

지난해 콘체르탄테에서 음악으로 먼저 들었던 인물들의 목소리가 이제 무대 위에서 몸을 연습니다.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상상했듯, 관객 여러분도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온 이 여인의 삶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Director's Note

연출가 노트

2026년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폐막작인 오페라 <미인>은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여러 그림과 특히 <미인도>에서 착안하여, 가상의 스토리를 엮어서 오페라대본을 만들어 곡을 붙여서 작년 콘체르탄테로 먼저 선보인 후, 곡과 대본을 수정 보완하여 만든 창작 오페라입니다.

먼저, 저는 이 오페라를 처음 두루 살피면서 개인적으로 주인공들만의 대본과 음악으로는 오페라 전체의 감상을 통한 만족을 이끌어내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공명감상의 만족도를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해의 작품작으로는 이 오페라 <미인>이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페라 <미인>의 전반적인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미인>의 연출자로서, 몇 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본과 음악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의 시각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무대 위 반원의 스크린에 후면 영상과, 전면 스크린에는 3D 입체영상과 신윤복의 풍속화들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생동감 있는 이미지들을 영상의 효과를 통하여 줄거리와 음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의 도움을 받는 것과 더불어 혹시나 모르는 해외 진출에 대비하여 조선시대의 다양한 우리 정서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등장인물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각 장면들을 합창단과 연기자, 무용단으로 장면들을 풍성하고 더욱 볼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꾸미려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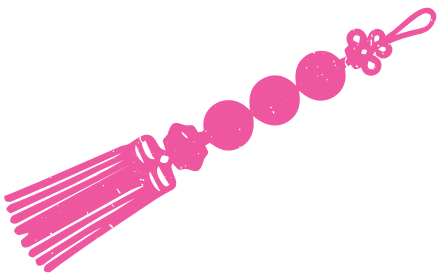
러시아의 연극 배우이자 극장장이었으며, 연극과 연기이론의 큰 틀을 마련한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동굴과 같은 무대에서 과거의 틀에 박힌 사고와 매너리즘에 대항해야 한다.” 라고 말 한 것처럼, 저 또한 이번 오페라 <미인>을 통하여 과거에 작품을 연출했던 저의 습관과 관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출가 유철우



Synopsis

줄거리



제 1막

몰락한 윤씨 가문은 가문의 영광과 벼슬을 얻기 위해, 병약한 장남이 숨진 뒤 어린 과부가 된 신씨에게 자결을 강요한다. 친정어머니마저 가문의 안위를 이유로 자결을 종용하지만, 평생 수절해 온 시어머니 한씨는 신씨에게 희생양이 되지 말고 도망쳐 자신만의 삶을 살라고 권유한다. 신씨는 옛 인연인 별감의 도움으로 기생 옷을 입고 탈출을 시도하고, 충직한 몸종 남순이 대신 과부 소복을 입고 있다 다른 하녀를 희롱하고 있는 차남을 꾸짖던 중 칼에 맞아 죽게 된다. 윤씨 집안 사람들은 이 참극을 숨긴 채 죽은 남순을 과부 신씨가 자결한 것으로 위장한다.

탈출한 신씨는 자신 대신 죽은 남순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과부들의 자결 소식을 수집하던 은양군과 마주친다. 신씨는 기생 역할을 자처하며 뛰어난 기지와 학식을 선보이고, 그녀의 도도하고 서늘한 매력에 반한 은양군은 '설우(雪雨)'라는 기명을 내려준다. 윤씨 가문이 거짓 자결을 꾸며 꽃상여를 들고 온 세상이 '열녀 신씨'를 찬양하는 동안, 신씨는 과부의 신분을 버리고 기생 '설우'로서 주체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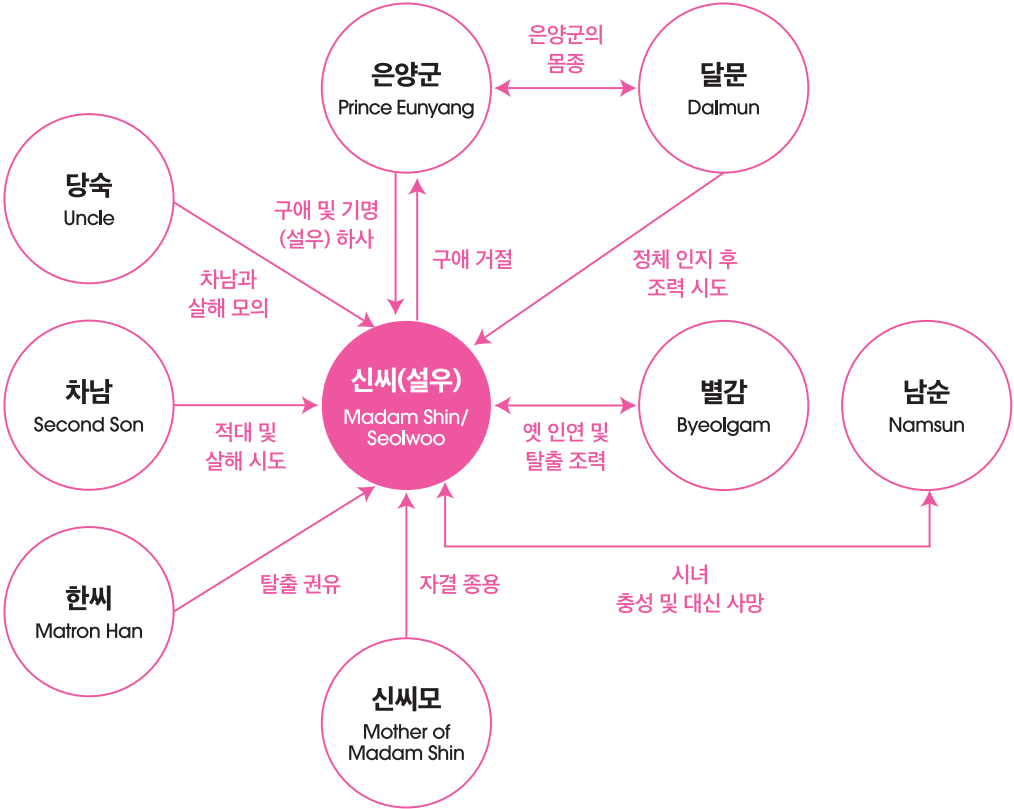
제 2막

은양군은 '열녀열전' 완성을 기념해 야유회를 열고, 기생 설우의 제안에 따라 윤씨 집안 사람들도 참석한다. 은양군의 구매와 별감의 도피 제안을 모두 거절한 설우는 자신의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다. 한편 윤씨 집안의 당숙과 차남은 설우가 도망친 며느리 '신씨'임을 알아채고, 가문의 거짓 자결 비밀이 밝혀질까 그녀를 살해하려 모의한다. 연회 도중 차남이 설우를 베어버리려 하자 시어머니 한씨가 뛰어들어 대신 칼에 맞아 숨을 거둔다. 차남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죄와 가문의 관직을 위해 며느리를 죽은 것으로 위장했음을 자백하고,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은양군은 별감을 칼로 죽인다. 이어 은양군은 패륜을 저지른 차남을 직접 처단한 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다.

Characters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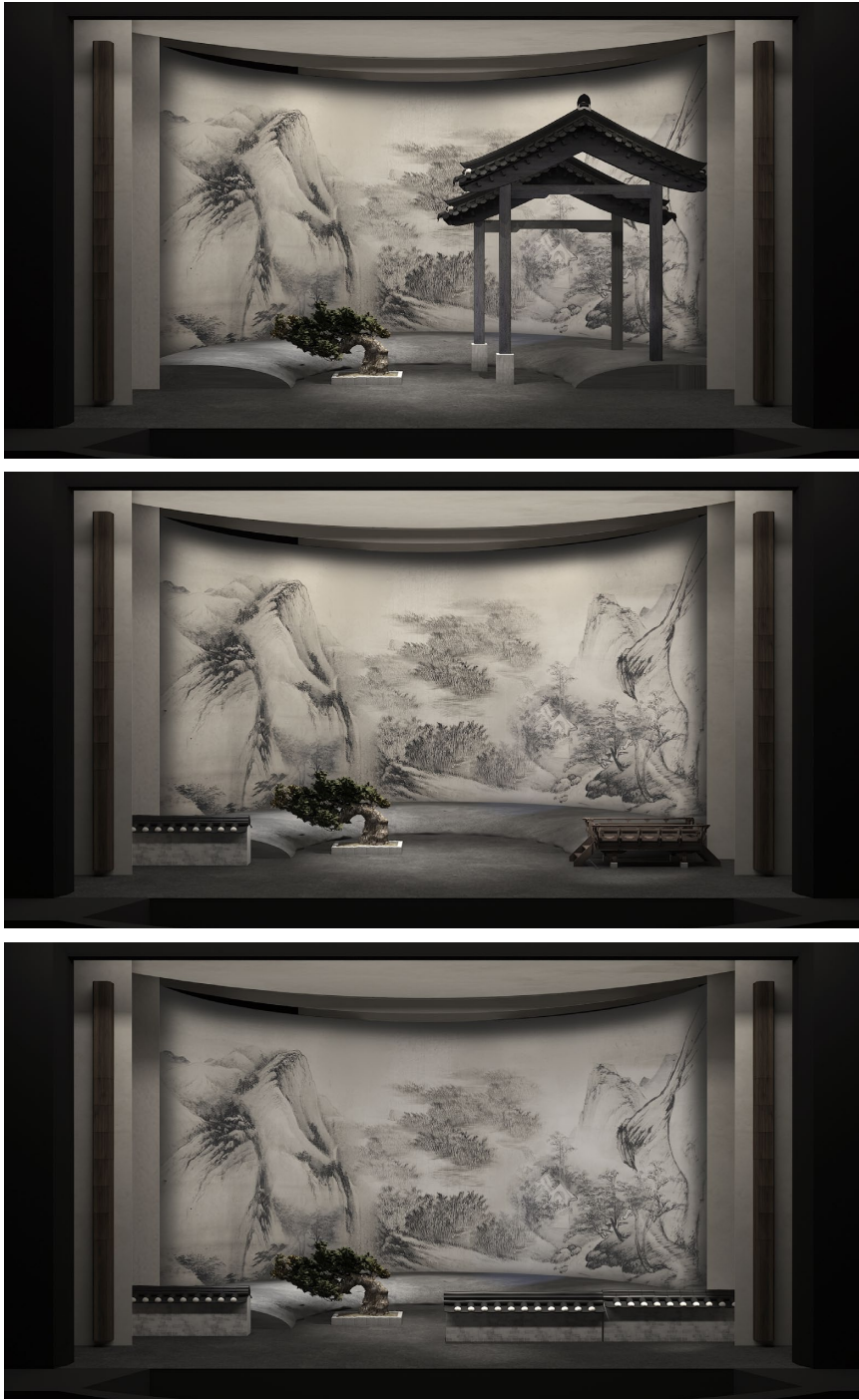
신씨/설우	19세. 미인 마당과부. 이미 병약했던 남편이 혼례식 날 바로 사망. 윤씨 남자들이 신씨를 죽여 자결로 위장하고 열녀문을 세우려 한다. 별감의 도움으로 도주하려다, 은양군을 만나 기생 설우라는 이름을 쓴다.
은양군	30대 후반. [열녀열전] 출간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려 하는 후궁소생 왕족. 난봉꾼.
별감	21세. 아버지는 약방 의원. 어릴 적 신씨 집안 일을 하다, 윤씨 집안으로 옮겼다. 한씨가 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공부를 도왔다. 한성군 소속으로 기방을 맡고 있다.
당숙	집안의 재건을 위해 여러 일을 꾸민다.
차남	10대 후반. 신씨의 시동생. 장남이 일찍 죽어 집안의 기대를 받는다. 어린 호색한.
달문	10대 중반. 은양군의 하인. 이런저런 심부름을 한다. 입담이 좋다. (여자가 남장)
한씨	40대 초반. 신씨의 시어머니. 그도 일찍 과부가 되어 평생 수절하고 있다. 과부 인생에 저항감이 크다.
남순	10대 후반. 신씨의 하녀. 신씨를 돕다 살해당한다.
신씨모	40대 중반. 신씨의 친정어머니. 집안을 건사하느라 딸을 희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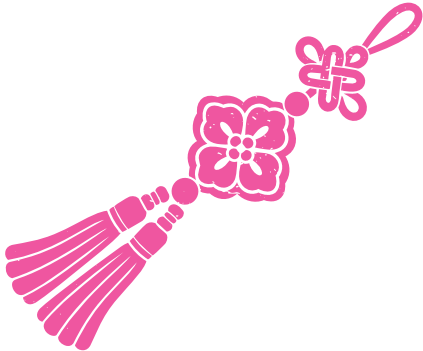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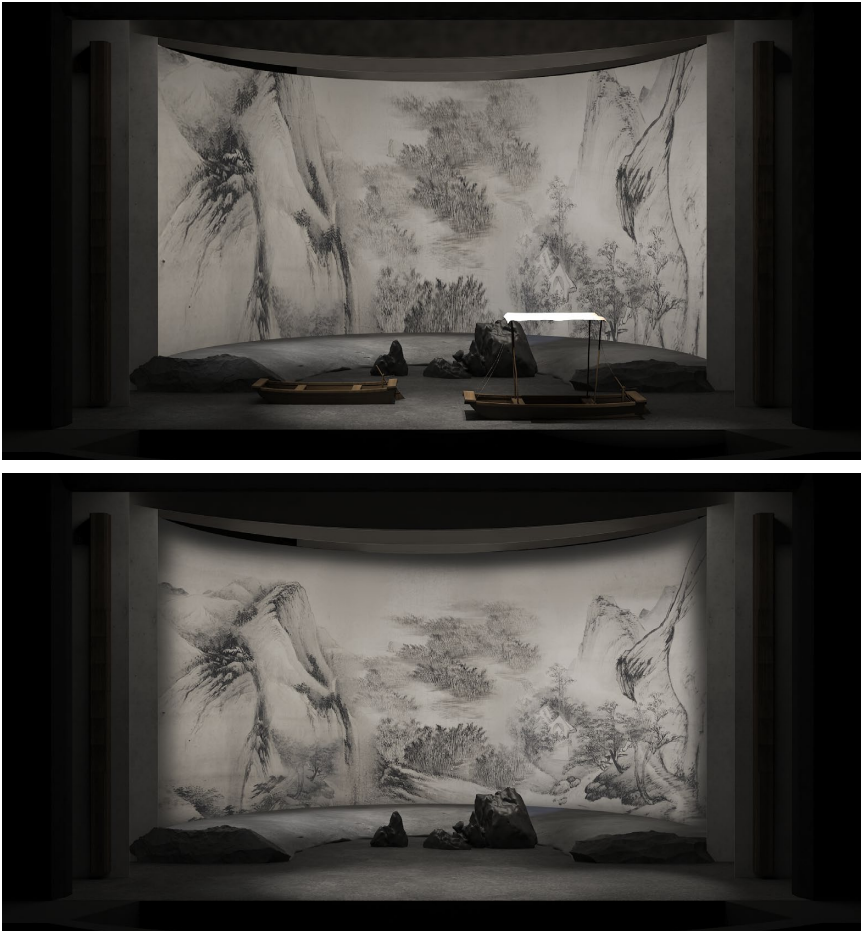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1막



2막



Costume Design

의상디자인



신씨



설우



당숙, 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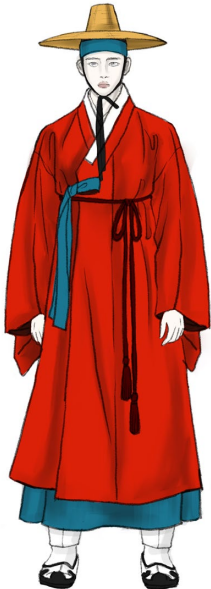
한씨



신씨모



은양군



별감



기생 1



기생 2



기생 3



기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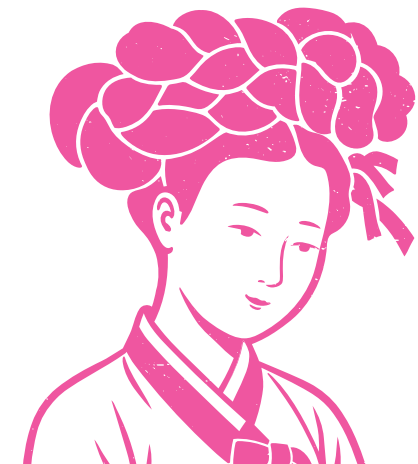
Creative Team

주요제작진



예술감독 이경재
Artistic Director Lee Kyoungjae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박사 수료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오페라 연출 석사 졸업(M.S.)
- 2016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연출상 수상
- 서울시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오페라단, 대전 예술의전당 등과 함께 오페라 <비밀결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마술피리>, <결혼 청구서>, <세비야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로미오와 줄리엣>, <팔리아치>, <라 보엠>, <잔니 스키키>, 현대오페라 <한여름밤의 꿈>, <컬류 리버>, <노처녀와 도둑>, <아말과 동방박사들>, 창작오페라 <한울춤>,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장충> 등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오페라 작품 연출
- 서울대학교 오페라 연구소 상임연출진, 제 6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역임
- 현)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지휘 이동신
Conductor Lee Dongsi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졸업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 지휘과 석사학위 및 연주박사학위 취득
- 창원마산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수석 지휘 역임
- 루빈스타인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타타르필하모닉,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다수 교향악단 지휘
- 계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현)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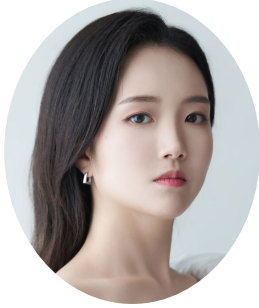


연출 유철우
Director Yu Cheolwoo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학 박사 수료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오페라 연출과 석사 졸업
- 창작 오페라 <장어선생의 외출>, <광염 소나타>, <놀부전>, <해녀>, <다시 무릎으로>, <피싱> 및 창작뮤지컬 <반디의 노래>, <작은 연못>, <물의 노래> 등 연출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라 보엠>,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등 대구오페라하우스, 경주 예술의 전당 등 300여회 이상의 오페라, 뮤지컬, 발레, 콘서트 등 연출
- 세종대학교, 한세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한국 커뮤니티학회 이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운영위원회 위원, 미래예술공장 대표

Cast

출연진



신씨/설우 Sop. 이혜진
Madam Shin/Seolwoo Sop. Lee Hyejin

- 서울대학교 성악과 우등졸업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 및 하노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고 점수 졸업
- 독일 쾰른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청중상, 폴란드 아다사리국제성악콩쿠르 1위 없는 2위/최고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상
- 독일 마그데부르크 오페라 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 <파우스트>, <리골레토>, <팔스타프>,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돈 파스칼레>, <세비야의 이발사>,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마술피리>, <돈 조반니>, <티토의 자비>, <피터 그라임스>, <카르멘>, <집시남작>, <헨젤과 그레텔>, <호프만 이야기>, <세르세>, <버림받은 디도>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2026/27 시즌 폴란드 브로츠와프 오페라극장 <리골레토> 질다 출연 예정



신씨/설우 Sop. 정선경
Madam Shin/Seolwoo Sop. Jeong Seonkyong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악대학 오페라 석사과정 졸업, 이탈리아 모데나 베키토넬리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이탈리아 베르첼리 발로티 고등음악원 오페라 연주자과정 수료
- 사르자나 국제 성악콩쿠르, 발세지아 국제 음악콩쿠르 3위 입상, 벨라노, 삐에제루비니 콩쿠르 특별상 입상
- 독일 베를린, 에센, 뒤셀도르프, 튀링 등 다수 극장에서 연주 및 오케스트라 협연, 이탈리아 모데나 국립 루치아노 파바로티 극장, 사르자나, 발세지아, 베르첼리, 벨라노, 뵈르도 산 죠르조에서 오케스트라 협연 및 갈라 콘서트 출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 오페라하우스 푸치니 갈라 콘서트 협연, 2025 코리안워크 일본 히로시마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불가리아 국립극장,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은양군 Bar. 권성준
Prince Eunyang Bar. Kwon Seongjun

-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라필라 알프레도 카셀라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수석 입학 및 최고점 졸업
-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스타빌레 국제 콩쿠르 전체 1위, 로마 M.I.W 국제콩쿠르 1위, 빈첸조 스카무라차 국제 콩쿠르 1위, 알프레도 카셀라 콩쿠르 1위 및 다수의 국제 콩쿠르 입상
- 이탈리아 오르토나 토스티극장 초청 콘서트, 이탈리아 로마 콘칠리아치오네 오디토리움에서 오페라갈라 콘서트, 이탈리아 코르토네에서 초청 독창회,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포텐차 스타빌레극장, 페스카라극장, 라팔라극장, 테라모극장, 아트리극장 및 유럽 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천마아트센터 등에서 오페라 <잔니 스키키>, <세비야의 이발사>, <카르멘>, <결혼보증서>, <라 보엠>, <장미의 기사>, <헨젤과 그레텔>, <사랑의 묘약>, <공모>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및 경북예고 출강



은양군 Bar. 서정혁
Prince Eunyang Bar. Seo Jeonghyeok

-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비테르보, 만토바, 베르가모, 몬테코사르, 로디 국제콩쿠르 등 입상
- 유럽의 피아첸차, 모데나, 베로나, 꼬모, 페라라, 산 레모, 베르첼리, 소피아, 부르가스, 칼스루에 및 한국의 서울 예술의전당, 서울 국립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일 트로바토레>, <돈 파스칼레>, <팔리아치>,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더 메디엄>, <더 텔레폰>, <박하사탕>, <헨젤과 그레텔>, <비밀결혼>, <버섯피자>, <운명의 힘>, <나비부인>, <카르멘>, <안드레아 세니에>, 오페레타 <박쥐> 등 출연 및 각종 콘서트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Cast

출연진



별감 Ten. 김동혁
Byeolgam Ten. Kim Dongnyuk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디플롬 및 조교과정 수료
- 빈첸조 벨리니 국제 성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잔루카 캄포키아로 국제 성악콩쿠르 대상 등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 입상
- 조수미 데뷔 30주년 기념 독창회 특별출연,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디오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의 콘서트 출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세비야의 이발사>, <리골레토>,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등 국내·외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로만썬 대표, KAN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활동 중



별감 Ten. 석정엽
Byeolgam Ten. Seok Jeongyub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졸업
- 중앙 음악 콩쿠르 2위, 난파 전국 음악 콩쿠르 대상
- 독일 오페라극장, 예술의전당,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세종문화회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국립 오페라극장,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극장 등에서 활동
- 오라토리오 헨델 '메시아', 모차르트 '레퀴엠', 베르디 '레퀴엠',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등 독창자로 연주
-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청교도>, <파우스트>, <세비야의 이발사>, <안나 볼레나>, <이중섭> 등 주역으로 활동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겸임교수 역임
-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및 영남대학교 음악학부 성악과 객원교수



당숙 Bar. 이준학
Uncle Bar. Lee Junhak

-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 제27회 수리음악콩쿠르 입상, 제3회 아울러서 국제콩쿠르 2위, 제1회 대전오페라단 국제콩쿠르 입상, 제1회 한·중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 롯데콘서트홀, 부산시민회관 오페라 갈라콘서트 협연
-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심청>,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라 보엠>, <카르멘>, <잔니 스키키> 및 창작오페라 <공모>, <놀부전>, <처용>, <마담 수로> 등 주·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차남 Ten. 이승민
Second Son Ten. Lee Seungmin

-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꼬모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 오디션 우승, 발세지아, 파우스토리치, 이즈마엘레 볼톨리니, 줄리오 잠모티, 피엔차, 리날도 벨리쥘리 국제콩쿠르 우승 및 수상
- 이탈리아 피엔차오페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광주시립오페라단, 원주오페라단, 울산오페라단, 포항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 등에서 오페라 <신데렐라>, <로미오와 줄리엣>, <라 보엠>, <사랑의 묘약>, <팔리아치>, <운수 좋은 날>, <세비야의 이발사>, <헨젤과 그레텔>, 오페레타 <박쥐> 등 주역 출연
- 현)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북예고 출강

Cast

출연진



달문 M. Sop. 김보라
Dalmun M. Sop. Kim Bora

- 영남대학교 성악과 수석 입학 및 졸업
-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석사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C Abbado 시립음악원 석사과정 및 Vocal coach 최고점 졸업
- 밀라노, 포르투갈, 핀란드, 파비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등 유럽 다수 초청 음악회 연주 및 대구오페라하우스 금난새의 마티네 콘서트 협연
- 오페라 <나비부인>, <리골레토>, <파우스트>, <오텔로>, <루살카>,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및 윤이상의 <심청>, 오페레타 <박쥐> 창작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 <찬기파랑가 흠모>, <간송>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영남대학교 강사 역임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한씨 M. Sop. 서미선
Matron Han M. Sop. Seo Miseon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아 디 까브리니 디플로마, KAAD 오페라 최고 연주자 과정 디플로마
- 국립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부산 콘서트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다수의 오페라와 콘서트 출연
- 창작오페라 <미인>, 공연예술 창작산실 선정작 <3과 2분의 1>, <명량선화> 출연
- 오라토리오 베토벤 '나인심포니',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마틴 팔메리 '탱고 미사',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 이탈리아 로마 필하모니, 코리아콰 오케스트라, 디오오케스트라, 광주시립교향악단, 전남 카메라타 등과 함께 오페라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신데렐라>,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및 창작오페라 <미인> 등 출연
- 현) KAN 엔터테인먼트 소속 및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남순 Sop. 허은정
Namsun Sop. Heo Eunjeong

- 한양대학교 성악과 실기 수석 졸업
- 독일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 최고점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톤할레 극장 솔리스트 역임
-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나인 심포니' 솔리스트 출연
- MBC '내일도 칸타빌레', KBS 대구 클래식FM 포시즌 특집 다수 출연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리타>, <사랑의 묘약>, <라 보엠>, <마술피리>, <킹 세종>, <리골레토>, <헨젤과 그레텔>, <꽃피는 바리>, <왕산 허위>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달서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비원뮤직홀 등 여러 기획연주 다수 출연
- 현) KAN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활동 중



신씨모 M. Sop. 이아름
Mother of Madam Shin M. Sop. Lee Arum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졸업
- 프랑스 브루그뉴 국제 콩쿠르 및 국내·외 다수 콩쿠르 입상
- 세계적인 소프라노 Cheryl Studer에게 발탁
- 오라토리오 카리시미 '예프테', 비발디 '글로리아',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레퀴엠', 베토벤 '합창 환상곡', '나인심포니', 멘델스존 '엘리아' 등 알토 독창자 연주
-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달의 세계>, <마술피리>, <파우스트>, <일 트리티코>, <팔스타프>, <유쾌한 미망인>, <친구 프리츠>, <오이디푸스 왕>, <결혼>, <헨젤과 그레텔>, <장미의 기사>, <춘향전>, <게임 오브 찬스> 및 오페레타 <박쥐> 등 주·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Cast

출연진



정길무용단
Junggil Dance
Company

2003년에 설립된 ‘정길무용단’은 한국춤의 전통성을 가짐과 동시에 창의성을 추구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현대시대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를 춤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한국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창작레파토리 개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단체이다.



대표 김현태
CEO Kim Hyuntae



무용수 김민지
Dancer Kim Minji



무용수 김하늘
Dancer Kim Haneul



무용수 신민진
Dancer Shin Minjin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늘해랑의 의미는 늘 해처럼 밝고 행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처럼 많은 배우들이 모여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관객들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극단입니다.



대표 김예진
CEO Kim Yejin



부대표 한담덕
Deputy CEO Han Damdeok



연기자 박중홍
Actor Park Junghong



연기자 임지윤
Actor Lim Jiyeon



연기자 최영재
Actor Choi Youngjae

Cast

출연단체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디오오케스트라(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는 2004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주요 기획공연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연주단체로 성장해왔다. 오페라 연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고전부터 현대 창작 오페라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성악·무대와의 유기적인 호흡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공문화예술 사업과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오페라와 클래식 대중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박상은
- 바이올린 I 박은지 장혜진 노선균 바이올린 II 이은영 류가현 장혜지 비올라 김효원 박선영
- 첼로 강윤선 박소현 콘트라베이스 김지정 플루트 백선미 오보에 배민주 클라리넷 김민수
- 바순 조혜연 호른 양삼영 김태우 트럼펫 이해연 트럼본 이민정
- 타악기 이희정 신디사이저 이용희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구오페라콰이어는 예술성과 열정을 갖춘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오페라 전문 합창단이다. 2019년 창단 이래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오페라 제작과 기획공연에 참여하며 수준 높은 음악성과 무대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오페라를 중심으로 콘서트 오페라, 합창 음악회, 기획 연주 등 폭넓은 무대를 통해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있으며, 창작 오페라와 합창곡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지역 예술가·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 성악가들에게 전문적인 무대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부지휘자 현대명 단무장 배은경 반주자 류지원 임윤지
- 소프라노 김서현 박주은 서아영 신유경 이나은 이다영 이서연 전영민 정경진 정원정 박예람(트레이너)
- 알토 권민선 김채윤 박수정 박지원 손선에 이진아 정주현 최선주 한혜원 홍사랑
- 테너 민경휘 서영덕 윤덕환 이승현 이유현 임현빈 전지훈
- 베이스 이승훈 조해준 김준년 박종섭(총무)

Staff

제작진



무대디자인 최진규
Scenic Design Choi Jinkyu

- 중앙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원 무대미술 전공
- 2000년 제2회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5월의 마리아>로 데뷔 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파우스트>, 서울시오페라단 <바스티앵과 바스티엔느>, <돈 조반니>, 창작오페라 <한울춤>, <사랑의 묘약>,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서울시오페라단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창작오페라 <미호연>, 대구오페라하우스 2016 <나비부인>, <박쥐>, 유니버설 발레단 <춘향>, 경남오페라단 <일 트로바토레>, 국립오페라단 2020 <라 보엠> 등 100여편의 오페라와 발레, 뮤지컬의 무대와 영상 작업
- 현) 전문 무대디자이너로 활동 중



의상디자인 박선미
Costume Design Park Sunmi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안드레아 세니에>, <돈 조반니>, <토스카>, <춘희>, <나비부인>, <세비야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카르멘>, <리골레토>, <헨젤과 그레텔>, <라 보엠>, <투란도트> 등 천여편 의상 감독 및 디자인
- 창작오페라 <화가 이중섭>, <석주 이상룡>, <아! 장비록>, <손양원> 등 다수 의상디자인
-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발레 페스티벌,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 중국 5개 도시 및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등 해외 주요 극장 및 국제페스티벌 의상디자인 및 감독
-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솔오페라단 등 국내·외 주요 오페라단 및 극장에서 1998년부터 활동 중
- 현) 선미무대의상, 선미드레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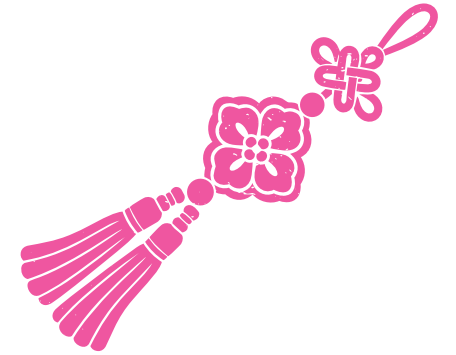
영상디자인 한지원
Video Design Han Jiwon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토스카>, <돈 조반니>,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파우스트> 및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해녀수덕>, <세종의 꿈>, <레테> 등 다수의 오페라 작품 영상디자인
- 신라문화제 개막식 미디어파사드, 제주 '행묘비원' 미디어아트, ACC 창·제작 공연 쇼케이스, 국립국악원 <사직제례악> 등 대형 미디어아트 및 국악·무용 공연 영상디자인
- 한-아세안 정상회담 문화혁신포럼,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BTS 'MAP OF THE SOUL : 7' 기자간담회 등 주요 국가 행사 및 상업 프로젝트 영상 제작 참여
-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등 국내 주요 오페라단 및 극장에서 오페라·국악·미디어아트 영상디자이너로 활동 중
- 현) (주)비주얼케이 영상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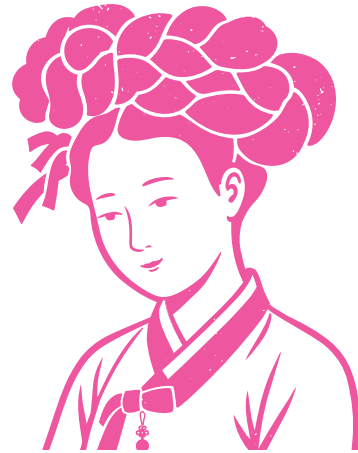
조명디자인 문길환
Light Design Moon Gilhwan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독일 K15페스티벌,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극장, 일본 히로시마 아스텔프라자극장, 일본 요코하마 덴스컬렉션 R, 헝가리 에르셀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극장 등 국내외 주요 극장 및 국제 페스티벌 조명 디자인
- 연극 '반야아저씨', '유리동물원'
- 무용 '햄릿 에피소드', '코리아 더블빌', 'ICE&WATER' 등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라 보엠>,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일 트리티코>,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세비야의 이발사>, <리골레토>, <돈 카를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투란도트>, <살로메>, <장미의 기사>, <오텔로>, <아이다>, <안드레아 세니에>, <일 트로바토레>, 오페레타 <박쥐> 등



Staff

제작진



분장디자인 김언영
Make-up Design Kim Eonyoung

-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 디자인학과 미술학 석사
- 프랑스 크리스찬 쇼보 수료
- 제32회 대구연극제 '무대미술상' 입상
- 실경수상 창작뮤지컬 '부용지애' 분장 총괄, 창작뮤지컬 '왕의 나라' 분장 총괄, 도동서원 사액봉행재현행사 분장 총괄
- 연극 '햄릿', '리어왕', '한 여름밤의 꿈', '탈라라하우스', '템페스트', '십이야', '파우스트', '해무' 등 다수 연극 분장디자인
- 오페라 <심청>, <264, 그 한 개의 별>,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리날도>, <라 보엠>, <마술피리>, <돈 조반니>, <팔리아치>, <춘향전>, <잔니 스키키>, <세비야의 이발사>, <카르멘>, <아키스와 갈라테아>, <살로메> 등 다수 오페라 분장 디자인
- 현) 에리카메이크업프로덕션 대표



조연출 장소희
Assistant Director Jang Soh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오페라 <나비부인>, <아이다>, <투란도트>, <심청>, <토스카>, <살로메>, <안드레아 세니에>, <장미의 기사>, <264, 그 한 개의 별>, <일 트로바토레>, 오페라 콘체르탄테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미인>,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조연출
- 무장애 접근성 활성화 'La traviata' 연출
- 현) 국내·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로 활동 중



오페라코치 정지은
Opera Coach Jung Jieu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 코치과정 만점 졸업, 라 스칼라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과정 디플로마,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과정(장학생 선발) 디플로마
- 제12회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제콩쿠르 1위(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
- 라 스칼라 극장 반주자 및 어시스턴트, 국립오페라단 <세비야의 이발사>,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음악코치 역임 및 국내·외 다수의 마스터클래스, 독창회, 독주회 반주
- 국립오페라단 스튜디오 오페라코치 역임,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오페라코치 역임
- 현) 오페라코치로 활동 중



반주 김현서
Accompanist Kim Hyeonseo

- 계명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피아노과 수석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 및 부지휘과 수석 만점 졸업
- 로마 아카데미 오페라코치과 디플로마 및 피렌체 일 트릴로 아카데미 오페라코치 만점 디플로마
- 로마 A.I.A.R.T 아카데미 합창지휘 최고전문가과정 만점 졸업
-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주최 국제음악콩쿠르 반주 부문 1위
- 오페라 <돈 조반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잔니 스키키>, <세비야의 이발사>, <신데렐라>, <라 보엠>, <리골레토>, <카르멘>, <사랑의 묘약>, <오페라와 에우리디체>, <헨젤과 그레텔>, <능소화 하늘꽃> 등 코치, 반주, 감독 다수 참여
- 현)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및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코치로 활동 중



안무가 김현태
Choreography Kim Hyunta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정길무용단 대표
- 제19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무대미술상, 연기상 수상
- 대구예술상 '대구를 빛낸 청년예술인상' 수상
- 2021 춤비평가협회 "연기상" 수상
- 2024년 PAF 올해의 안무상 수상
- 2024 춤비평가협회 안무상 수상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예술감독 이경재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무대디자인 최진규

의상디자인 박선미

영상디자인 한지원

조명디자인 문길환

분장디자인 김언영

무대감독 정진섭

조명감독 문길환

음향감독 차광석

영상감독 우기하

영상기술감독 이강석

오페라코치 정지은

반주 김현서

조연출 장소희

조연출보 이아영

소품수 박세은 신주원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영상오퍼레이터 김우림

무대크루 김민호 김수현 김태현 서우용

심건수 원현지 이승준 최대현

조명크루 금명정 김동엽 류수진

배수영 심유섭 허누리 황도성

의상크루 팀장 김현지

팀원 김명근 김창근 유지연 이지예

분장팀 에리카 프로덕션 (대표 김언영)

팀장 김호련 김수정

팀원 김현주 이하늘 박지현

이혜민 정예진 이서연 김민주

사진촬영팀 용스튜디오

영상촬영팀 (주)좋은미디어프로덕션

무대제작소 이조디자인

의상제작소 선미무대의상

소품제작소 미티테이즈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Daegu Opera House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최은정 이한나 박선영 최서운 한규리
최보윤 양정화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조현우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김동현

11기 오페라팬 김혜영 박윤정 박채린 오승미 정다은

19기 오페라필 구묘선 권민수 김규리 김다현 김동현 김민채
김보영 김서현 김수아 김예주 김은미 김은선
김주연 김채원 도예은 도인하 류승운 문경은
박인기 박제민 박지은 박한별 백지영 오서빈
오성준 옥지연 윤혜원 이경연 이나경 이세은
이수인 이조은 이효식 장가는 장세희 장지웅
정다은 최성경 최영주 황금선





